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 이어간다

교섭단체연설 · 예산심사 · 본회의 본격 돌입

오늘 文의장-원내대표 회동...패트 분수령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예산심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일정을 이어가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다. 첫 날인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단상에 오르며, 29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려 했

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공정이었던 만큼, 여야는 모두 공정을 앞세우며,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각 당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여야는 28일과 29일에는 종합정책 질의를,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 자리에서 513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1일 열린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P2P금융법 등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린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도 이날 진행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정례회동을 열고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댄다.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 었지만, 문 의장의 순방 일정으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만약 이 자리에서 공수처 등 주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이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은 29일 자동 부의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난 1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던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잇따라 재선 포기한 초선들

그들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나

국회 현실에 회의감...조국 정국도 한 몫

그들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도 지난 24일, 내년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인 민주당에 서만 한 달 새 두 명의 '이름 난' 의원이 재선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 3년 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적 자질을 인정받고,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초선 의원이 연이어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두 의원 공통적으로 소위 '여의도 정치'의 어려움과 회의감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했으며, 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몇몇 초선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보던 정치와 국회 안에서 보던 정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나라와 사회를 바꾸겠다는 큰 꿈을 안고 국회로 입성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패스트트랙·조국 정국 등이 이어지면서, 유독 협치는 실종됐고 정쟁만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최근 민주당에게 '지옥'을 맞보게 했던 조국 정국 또한 이들의 불출마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잘못을 떠나,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청년층의 '공정성' 지적은 이들에게도 아프게 다가왔다. 표 의원은 불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심경도 백분 이해하고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다"면서 "반면 우리에게 제기된 내로남불, 공정성 시비도 힘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그 어느 때보다 '극한직업'이 된 상황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과 표 의원 외에도, 김성수·서형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 등이 주변에 불출마 뜻을 밝혔거나 불출마를 고심 중이다.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유민봉·조훈현 의원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담겼을 것"이라며 "본인들 스스로 한계와 역량 부족을 느꼈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출마 선언에 강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끝까지 국회에 남아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가 있을 텐데,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정치관을 떠나버린다면 나쁜 정치인만 남는다"며 "(국회에서) 좋은 정치를 통해, 더 좋은 정치를 할 사람들이 등장하도록 희망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 오늘 881일로 최장수 총리된다...대선 행보는 언제

발탁 배경된 '호남·비주류' 대선에선 극복과제로

페이스메이커 역할 주목... '최장수' 이용 분석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면서 다음으로 어떤 직책을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리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신속한 현안 대처에 높은 평가를 받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회창·고건·이수성·황교안 등 총리 출신의 유력 대선 주자가 많았지만 모두 총리직을 떠난 뒤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회하기 위해 대선 후보 1위인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 총리의 최종 목표는 총선보다는 대선에 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부러지게 말하는 이 총리가 대선에 대해서만큼은 '나가지 않겠다'고 일축하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총리의 지지자들은 대선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총리직에서 물러나 내년 총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당내 세력이 부족한 이 총리가 지지율 1위라는 간판으로 총선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출신이다. 이 총리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다.

'호남 후보 필패론'은 민주당 역대 대선 경선에서 늘 유지됐다. 호남 인구는 영남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논리에서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이 벽을 넘지 못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번 문턱을 넘은적이 있으나 그에게는 한평생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스토리가 있었다. 서울대 법대, 동아일보 기자, 4선 의원, 도지사 등 어찌보면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이 총리에게 특별한



지난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삶의 궤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꼴찌를 했을 정도로 자신의 측근이 없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대선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 총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언론에 드러날 수 있는 총리직을 최대한 유지하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 당

에 복귀,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총선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내각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총리가 이를 충분히 활용해 여의도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최대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론 관계자는 "정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인사 검증에 더욱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총리가 이를 더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